웨스트민스터 '예배 지침'에 나타난 청교도 예배와 설교*

박태현(총신대, 설교학)

I. 들어가는 글

루터와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일차적인 표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손꼽았다.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선포 없이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21세기의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전히 지탱되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준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설교와 함께 흥망성쇠를 같이한다는 포사이드(P. T. Forsyth)의 명언은 언제나 참된 것이다.[1)]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교회 안팎으로 터져 나오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은 한국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2)] 특히 말씀 중심의 개혁신학을 신봉하는 한국 장로교회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사역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예배와 설교가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의 개혁은 요원할 수

*) 본 소논문은 Apeldoorn 신학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였던 *The Sacred Rhetoric of the Holy Spirit: A Study of Puritan Preaching in a Pneumatological Perspective* (Apeldoorn 2005)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1) P. T. Forsyth,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dern Min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3.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장로교회가 고백하고 수용하는 '웨스트민스터 회의'(the Westminster Assembly, 1643-1649)에서 작성된 표준 문서들 가운데 하나인 '예배 지침'에 나타난 청교도들의 예배와 설교에 대한 사상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일은 오늘의 예배관과 설교관을 바르게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3] 이 회의에서 작성된 문서는 교리, 예배, 정치, 그리고 요리문답서의 영역에서 17세기 개혁신학의 절정에 해당한다.[4]

2) 최근 10여년 사이에 매스컴을 통해 교회 안팎으로 터져 나오는 대형교회들의 온갖 비리들과 도덕적 실추는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평신도가 아닌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3)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중요한 책들을 참조하라. Alexander F. Mitchell & John Struthers, *Minutes of the Session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 (= *Minutes*) (London /Edinburgh, 1874. rep. Edmonton) Alexander F. Mitchell, *The Westminster Assembly, Its History and Standards* (= *The Westminster Assembly*), The Baird Lecture for 1882, (London, 1883). W. M. Hetherington, *History of the 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 (1843. 3rd ed. 1856. rep. Edmonton, 1993). George Gillespie, *The Works of Mr. George Gillespie*, 2 vols. ed. W. M. Hetherington, (Edinburgh, 1846. rep. Edmonton). Robert Baillie, *The Letters and Journals of Robert Baillie 1637-1662* (= *Letters and Journals*). ed. David Laing, 3 vols. (Edinburgh, 1841-42). John Lightfoot, *The Journal of the Proceedings of the Assembly of Divines*. Vol. XIII. of *The Whole Works of the Rev. John Lightfoot, D.D.* (1824). B. B. Warfield, *The Works of Benjamin B. Warfield*. vol. VI.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New York 1932, rep. Grand Rapids, 2000). S. W. Carruthers, *Everyday Work of the Westminster Assembly* (Philadelphia, 1943).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A Handbook of Christian Doctrine Expounding the Westminster Confession* (= *The Confession of Faith*), (1869. rep. Edinburgh/Pennsylvania 1978), 21. Horton Davies, *The Worship of the English Puritans* (= *English Puritans*) (1948, rep. Morgan, 1997). John L. Carson and David W. Hall, ed. *To Glorify and Enjoy God* (Edinburgh/Pennsylvania, 1994). J. Ligon Duncan, III. ed.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to the 21st century: Essays in Remembrance of the 350th Anniversary of the Westminster Assembly* (Ross-shire, 2003). John H. Leith, *Assembly at Westminster: Reformed Theology in the Making*, (Atlanta, 1973), 23-43 or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 its Historical, Social and Theological Context,' in *Calvin Studies VIII.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 Current Thought* (Davidson, 1996), 1-13. P. Toon, *Puritans and Calvinism*. 52-61. H. Natzijl, red. *De Synode van Westminster 1643-1649* (Houten, 2002). 필자는 다른 관련된 고백 문서들을 포함한『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 *WCF*)를 사용한다. The Publications of Committee of the Free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 Inverness 1970. Agreed upon by the Assembly of Divines at Westminster: Examined and approved, *Anno* 1647,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Scotland; and ratified by Acts of Parliament 1649 and 1690.

키더민스터(Kidderminster)의 유명한 설교자요 목회자인 리차드 박스터(1615-1691)는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거기에 모였던 성직자들은 뛰어난 학식과 경건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목회적 능력과 신실성을 겸비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길 가치가 없지만, 나는 내가 아는 바 진리를 더욱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심지어 악의와 질투 앞에서조차,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한, 모든 역사의 가르침과 우리에게 남겨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사도 시대 이후 기독교 세계가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대회(Synod)와 도르트 대회(Synod of Dort)보다 더 우수한 성직자들의 대회는 결코 없었다.[5)]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은 단지 대영제국 교회의 역사적 순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세계 장로교회들, 특히 스코틀랜드, 북미와 한국 장로교회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회의는 영국 사회와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격동의 시민전쟁(Civil Wars, 1642-1649)이 진행되는 동안에 개최되었다.

우리는 청교도들의 예배와 설교의 신학을 살펴볼 것인데, 특히 성령의 사역과 연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즉,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그들은 설교와 성령의 사역 사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의 세 왕국의 '엄숙한 동맹과 언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

4) John H. Leith,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 its Historical, Social and Theological Context,' 10.

5) Alexander F. Mitchell, *Minutes*, 서론, xxxix. 유사한 맥락에서, 밋첼(Mitchell)은 "제 1차 니케아 공의회 이후 그 어떤 대회(Synod)도 이보다 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결정은 … 실제적으로 만장일치여야 하며, 정치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규정은 상세한 내용에 매우 상당한 자유와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다룬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Minutes*, xlv.

1643)에 의해 분명하게 선언된 "종교, 신앙고백, 교회 정치의 형태, 예배와 교리교육의 지침의 가장 밀접한 결합과 일치"를 얻기 위해 수 많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일궈낸 산물이다.[6]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탐구 목적을 위해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신학적 내용에 대한 역사적 배경 연구와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실제 의사록에 대한 연구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The Directory for the Publick Worship of God)

'예배 지침'(*Directory*)은 우리의 탐구 목적을 위해 가장 적절한 문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매주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에서의 목사의 의무에 대한 실천적 안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 지침은 청교도 예배 역사에서 규정된 예전의 순서와 조직되지 않고 즉흥적인 예배 사이의 '중도'(中道, *via media*)를 특징짓는 "17세기 청교도 예배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는 '이정표(里程標)'다. 예배지침은 또한 오직 즉흥적 기도의 필요성만을 고집하는 잘못된 견해를 교정한다.[7] 그래서 우리는 '예배 지침'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우리의 관심사를 위해 공적 예배의 순서와 본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Ⅱ. 펴는 글

1. 일반적 중요성

'예배 지침'이 극도로 불안정한 시민전쟁의 기간에 산출된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이유와 신학적 이유.[8] 첫째, 역

6) *WCF*, 359.
7) Horton Davies, English Puritans. 127-42. 특히, 141-42.
8) Iain H. Murray, 'The Directory for Public Worship,' in *To Glorify and Enjoy God*, 171-72. Alan Clifford, 'The Westminster Directory of Public Worship (1645),' in *The Reformation of Worship. Papers read at the 1989 Westminster Conference* (Essex, 1989), 58.

사적 이유로서 청교도들은, 장로교도이든 독립파든, 의회(Parliament)와 함께 감독제(episcopacy)와 '공공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에 대한 잠재적 불만을 갖고 공중 예배를 정화하기 원했다. 둘째, 신학적 이유로서 기독교는 단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구원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에 관한 것이므로, '예배 지침' 작성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한다.[9]

예배 지침은 공중 예배를 위한 예전적 안내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 표현으로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석한 성직자들의 예배에 대한 공적 논쟁과 경험에 의해 산출되었다.[10] 이 지침은 소위원회가 거의 70회에 걸친 노력과 논쟁을 거친 후에 완성하기까지 거의 열 두 달(1643년 12월 16일 – 1644년 12월 27일)이 소요되었다.[11] 이것은 이 작업에 가담한 네 개의 다른 집단에 의해 절충되었다. 대다수는 장로교도였으며(9/10), 나머지는 에라스티안파(Erastians), 독립파(Independents), 그리고 스코틀랜드 대표들이었다. 그 가운데 후자의 두 집단이 그들의 수효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12] 스코틀랜드 대표들은 한 국가의 파견단으로서 예배 지침

9) 여기서 개혁신학의 독특한 면이 부각된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는 루터파 신학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하고 하는 '인간론적' 사고에 머무는 반면, 개혁파 신학은 이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신론적' 사고에 집중한다고 말함으로써 개혁파 신학의 탁월성을 여실하게 드러낸다.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박태현 옮김, 『개혁교의학』, 전 4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제 1권, 248.

10) Stanley R. Hall, 'The Westminster Directory and Reform of Worship,' in *Calvin Studies VIII.*, 95.

11) 예배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의 지시는 '교회 정치'를 위한 지시와 더불어 1643년 10월 12일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내려졌다. 공중 예배 지침을 위한 소위원회는1643년 12월 16일 임명되었고, 스코틀랜드 대표단 외에 다섯 명의 목사, 즉 스티픈 마샬(Stephen Marshall, 의장), 허버트 팔머(Herbert Palmer),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 토마스 영(Thomas Young), 그리고 찰스 허얼(Charles Herle)로 구성되었다. 214.

12) Stanley R. Hall, 'The Westminster Directory and Reform of Worship,' 96. 독립파와 에라스티안파는 둘 다 크롬웰(Cromwell)과 의회 의원들과 같은 정치인들의 지원에 힘입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W. M. Hetherington, 'Memoir of the Rev. George Gillespie (= Memoir),' in *The Works of Mr. George Gillespie*. vol. 1. (Edinburgh 1846, rep. by Still Water Revival Books, Edmonton), xxi, xxvii.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18–19.

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엄숙한 동맹과 언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에 따라 토론에 참여하고 그 작업을 규정했던 그들의 이중적 기능은 장로교 예배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였다.[13] 그 타협은 주의 성찬 시행의 방식에서 드러나는데, 그 방식은 단순히 "성찬 참석자는 질서 있게 (식탁) 주변에 … 혹은 식탁에 앉는다"라는 표현하고 있다.[14] 주의 성찬 집행을 위한 성축(聖祝, consecration) 기도 역시 절충의 한 증거인데, 스코틀랜드 '공공예배서'(*Book of Common Order*)와 잉글랜드의 '공공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의 혼합이다.[15]

잉글랜드 의회의 양원에 의해 1645년 1월 4일에 승인된,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와 스코틀랜드 의회의 직권에 의해 각각 1645년 2월 3일과 6일에 승인된 '예배 지침'은 단지 15년 동안(1645-1660)만 '공공기도서'를 사용하거나 '예배 지침'을 따르지 않는데 대한 처벌을 갖는 법적 구속력을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지침'은 일반적으로 장로교 세계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다.[16] 하지만 아쉽게도, '예배 지침'이 비록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연관된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첫 번째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세계 장로교회에서조차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 가운데 가장 읽혀

13) 1647년 8월 6일, 조오지 길레스피(George Gillespie)는 에딘버러(Edinburgh)에서 개최된 총회(the General Assembly)에서 연설하였는데, 스코틀랜드 대표단의 이중적 기능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따라 갑절의 능력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의회와 성직자 위원회를 공동으로 취급하였고, 나쁜 사람들을 교회의 성사(sacrament)로부터 제외시키는 교회의 직분, 이단의 성장에 관하여, 그리고 당신들과 우리들의 판단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결함들과 같은 것들에 관하여 많은 문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의에 참석한 성직자들과 논쟁하고 그들의 논쟁을 도움으로써 다른 능력 가운데 수행했습니다.…" in Baillie's *Letters and Journals*. III. Appendix. 450. B. B.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33.

14) *WCF*, 385.

15) Alexander F. Mitchell, *The Westminster Assembly*, 235. B. B.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46.

16) Stanley R. Hall, 'The Westminster Directory and Reform of Worship,' 91. *Directory*, 371-72. ODCC, 1732.

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17]

'지침'(*Directory*)이라는 제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18] 흔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예배 지침'은 목회와 관련된 열 네 개 항목을 포함하고 부록으로 '공중 예배의 날들과 장소들'을 포함한다. 즉, 이것은 공중 예배와 더불어 엄숙한 결혼, 병자 방문, 죽은 자의 매장, 엄숙한 공중 금식일과 감사일과 같은 목회와 연관된 다른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다. 이것은 "포괄적인 목회 신학의 요체"라고 불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은 분명히 그 범위를 드러내는데, 즉 "일반적 항목들, 기도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공중 예배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예전적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이 지침서를 통해 목회자들이 게으르고 무지한 상태에 안주하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불일 듯 하게 하여" 그들을 돕고자 원했다.[20]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재가된

17) Iain H. Murray, 'The Directory for Public Worship,' 171. Alan Clifford, 'The Westminster Directory of Public Worship (1645),' 54. '예배 지침'을 산출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게 된 까닭은, 잉글랜드 교회의 예배 순서와 치리가 다른 형태의 예전이 지정되기 일년 전에 이미 파기되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닐(Daniel Neal)은 의회의 그런 절차를 "중대한 실수"로 생각한다. Daniel Neal, *The History of the Puritans* (London 1837, A new ed. in 3 vols. reprinted from the text of Dr. Toulmin's edition, Minneapolis, 1979), 2:271.

18) Stanley R. Hall, 'The Westminster Directory and Reform of Worship.' 93. 반대 의견으로서 Iain H. Murray, 'The Directory for Public Worship,' 174. "'지침'(Directory)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새로운 것이며 계획적이었다." 『교회 정치 지침』(*A Directory of Church-Government*, 1644)에 대해 약간의 혼동이 있다. 스탠리 홀(Stanley R. Hall)은 『교회 정치 지침』을 월터 트래버스(Walter Travers)와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가 작성한 *Ecclesiasticae Disciplinae et Anglicanae Ecclesiae ab illa aberratione, plena e verbo Dei et dilucida Explicatio* (1574)을 동일 년도에 카트라이트(T. Cartwright)가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할러(W. Haller)는 『교회 정치 지침』(1644)을 청교도 두 명이 작성한 *Discipline ecclesiae sacra Dei verbo descripta* (c. 1583)에 대한 카트라이트의 번역으로 파악한다. ODCC는 Ecclesiasticae Disciplinae (1574)을 트래버스(Travers)의 주요 작품이며, 카트라이트에 의해 동시에 번역된 것으로 고려하고, 1644년에 비로소 번역된 *Discipline ecclesiae sacra Dei verbo descripta*과는 구별한다. 487, 1637-8. W. Haller, *The Rise of Puritanism* (1938, Harper Torch Book ed. New York, 1957), 409.

19) Charles J. Brown, 'The leading features and excellencies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Bicentenary of the Assembly of Divines at Westminster, held at Edinburgh, July 12 and 13, 1843. Containing a Full and Authentic Report of the Addresses and Conversations* (Edinburgh 1843), 114. Iain H. Murray, 'The Directory for Public Worship,' 174에서 인용됨.

20) *WCF*, 374.

'예배 지침'은 과거에 작성된 예전과는 달리 기도문과 같은 것을 정하여 예전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종교의 통일과 일치를 위한 방안을 추천하는 것이다.[21] 그리고 이것은 국가 교회의 사용을 위해 의회에 의해 구속력을 지녔다. 그러므로 데이비스(H. Davies)는 "규칙과 자유 사이의 결혼"이라고 바르게 명명하였다.[22]

'예배 지침'의 제목 표지는 공중 예배를 지배하는 방식과 목적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예배에서의 모든 것은 사람들의 건덕을 위하여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고전14:26, 40). 서문에서, '예배 지침' 작성의 주요한 원리와 방식이 평이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모든 의식(ordinance)에서 신적 제도에 속한 것들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적 지혜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에 어울리게 다른 것들을 개진하는데 노력했다.[23]

'예배 지침' 작성의 주요한 원리로서 두 개의 규칙,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 규칙과 기독교적 지혜의 규칙이 언급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반적 규칙에 종속되는 '기독교적 지혜'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 규칙은 이성의 자유를 허용하되,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가장 훌륭한 개혁 교회의 본을 따라"라는 말에 상응하는 것이다.[24] 이처럼 이성의 자유와 지혜에 대한 여유를 허용함으로써 계시된 하

21) Alexander F. Mitchell, *The Westminster Assembly*, 224. B. B.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45. Iain H. Murray, 'The Directory for Public Worship,' 179. cf. Stanley R. Hall, 'The Westminster Directory and Reform of Worship,' 93. Horton Davies, *English Puritans*, 129.
22) Horton Davies, *English Puritans*, 129.
23) *WCF*, 374.
24) *WCF*, 35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시 예배와 정치의 어떤 상황들은 "본성의 빛에 의해, 그리고 기독교적 지혜에 의해, 그리고 말씀의 일반적 규칙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고 선명하게 진술한다. *Confession*. 1:6.

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에 의해 제정되고, 그래서 계시된 그분 자신의 뜻에 의해 제한된, 참 하나님 예배를 용인하는 방식"을 지도한다.[25]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바로 이 지배적인 원리를 통해 기본적인 성경적 단순성에 전념하였다.[26] 이 원리를 따라, 성직자들은 외경(Apocrypha) 읽기, 성직복(vestments), 대부모(god-parents), 세례와 주의 성찬의 사사로운 시행, 성일들(holy days), 그리고 십자가 긋기를 포함하는 "과거의 예전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였다."[27]

'예배 지침'을 완성시킨 방법은, 서문이 표명하듯이 "기도"와 많은 "협의"를 따라, 그리고 "혈과 육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된 것이다.[28] 이런 관점에서, 이안 머레이(Iain H. Murray)는 '예배 지침'의 가르침을 좌우하는 다섯 가지 원리들을 바르게 지적한다:[29] (1) 하나님의 말씀, (2) 기독교적 지혜와 상식, (3) 창조자, 보존자,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예배의 필요성, (4)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한 영적 예배, 그리고 (5) 기도를 위한 목사의 은사의 사용.

'예배 지침'은 잉글랜드의 '공공기도서'를 대체하기 위해 장로교 원리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30] 이것은 신학의 혁신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고 완전한 예배를 위하여 남아 있는 장애물들을 정화시킴으로써 예배의 개혁을 의도한 것이다. 한편으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많은 사

25) *Confession*. 21:1. 'Of Religious Worship, and the Sabbath Day.'
26) 제임스 화이트(James A. White)가 지적하듯이 이런 단순성을 "텅빈 것"(bareness)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Presbyterian Worship,' in *A New Dictionary of Liturgy & Worship*, 447.
27) *WCF*, 374. Iain H. Murray, 'The Directory for Public Worship,' 178. cf. '교회력'(The Christian year)은 『교회력을 위한 기도서』(*Prayers for the Christian Year*)에 나타난 것처럼 1935년에 장로교 예배에 되돌아 왔다. 오래 전에 중단된 '연속 낭독'(*lectio continua*)의 성구집이 『예배를 위한 기도서』(*Prayers for Divine Service*, 1923)에서 추천되었다. James A. White, 'Presbyterian Worship,' 447.
28) *WCF*, 374.
29) Iain H. Murray, 'The Directory for Public Worship,' 176-89.
30) '예배 지침'은 잉글랜드 기도서보다 한 때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된 '공공예배서'(*The Book of Common Order*)에 더 가까운 성격을 지녔다. Stanley R. Hall, 'The Westminster Directory and Reform of Worship,' 92. ODCC. 1767.

람이 옛 교황의 종교에 비하여 '공공기도서'를 통한 "그들 자신의 언어로 낭독된 성경을 듣기에" 개혁을 즐거워한다고 생각한다.[31] 다른 한편, 그들은 또한 더 진전되고 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열망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의 기도서가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의 기도서 논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작성된 기도문들과 무익하고 부담스런 많은 예식들(ceremonies)이 오랫동안 불쾌감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의 예전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커다란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설교란 "기껏해야 공공기도문을 읽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32] 옛 예전은 기도의 은사를 무시함으로써 "게으르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목회를 조장한다"고 여겨졌다.[33] 그들은 기도문을 거부하였는데, 기도문이 목회에 핵심적인 기도의 은사를 침식시켰기 때문이다.[34]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주기도문을 단지 "기도의 한 패턴"으로서만 아니라 또한 "가장 포괄적인 기도"로 여겨 교회에서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다.[35] 그러나 '예배 지침'은 경건한 생각과 표현을 미리 묵상하지 않는 즉흥 기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배 지침'은 오히려 작성된 기도문과 즉흥 기도라는 두 극단 사이의 중도를 제시한다. 필립 나이(Philip Nye, 약 1596-1672)는 이러한 중도를 열망하였는데, "나는 그 둘 중 어느 것도 호소하지 않고, 다만 '면밀하게 준비된'(studied) 기도를 호소합니다"라고 말하였다.[36] 목사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으로서 그들에게 전달할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듯이, 목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입으로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31) *WCF*, 373.
32) Ibid.
33) *WCF*, 374.
34) Stanley R. Hall, 'The Westminster Directory and Reform of Worship,' 95.
35) *WCF*, 382. LC. 187. 데이비스(H. Davies)는 정해진 기도서에서 다른 방향으로 진전된 것은 주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가했던 독립파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English Puritans*, 128.
36) MS. *Minutes of Assembly*, vol. ii. F. 287, Alexander F. Mitchell, *The Westminster Assembly*, 229에서 인용됨.

요청할 것을 반드시 준비하고 연구해야 한다.[37] 면밀하게 준비된 설교가 필요하듯이, 그렇게 면밀하게 준비된 기도가 확실히 필요하다.[38] 홀(Hall)이 바르게 언급하듯이, "'예배 지침'은 이런 기도의 사역을 설교의 봉사 아래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전적 기도의 포괄적인 사역의 개요 속에서 발전시키고 있다."[39] 이런 식으로, '예배 지침'은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 끝없는 다툼과 논쟁의 문제"를 일으키는 오류와 미신을 종식시키기 원하였고, 다른 한편, 확대하기를 "경건의 비밀의 지식, 그리고 설교와 기도의 은사들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40]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예배 지침'에서, 설교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말)은 매우 강조된다. 주로 시편과 신약성경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적인 낭독과 설교, 그리고 기도는 거룩한 주일 예배의 핵심을 이룬다.[41] 이런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설교자나 사제보다 "목사"(minister)라는 용어를 훨씬 더 선호하였다. 예배 가운데 사람들의 건덕을 위한 말씀의 봉사가 일차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초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의 성찬

그러나 주의 만찬의 성사(sacrament)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단

37) 퍼킨스의 청교도 설교학 교본, 『설교의 기술』(*The Arte of Prophecying*, 1607)에 나온 것을 그대로 따른다. 퍼킨스는 예언(prophecying)을 설교와 기도로 가르친다. William Perkins, *The Arte of Prophecying, in The Workes of that Famous and Worthy Minister of Christ in the University of Cambridge, Mr. William Perkins* (= *WP*), 3 vols. 제 2권, (1617), 2:646. 그리고 William Perkins, *The Calling of the Ministerie* (1609), in *WP*, 제 3권, (1631), 3b:431. 퍼킨스 전집 제 3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페이지가 다르므로, 첫 부분은 3a, 둘째 부분은 3b로 표기한다.

38) 밋첼(Mitchell)은 성직자들은 "기도를 하는 것은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 묵상, 준비와 기도의 문제로 여겼다"고 지적한다. The Westminster Assembly, 228.

39) Stanley R. Hall, 'The Westminster Directory and Reform of Worship,' 99.

40) *WCF*, 374.

41) James A. White, 'Presbyterian Worship,' 446-48.

순히 이차적인 것이나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42] 왜냐하면 '예배 지침'은 단순히 예배에서 "성찬(communion) 혹은 주의 만찬은 자주(frequently) 거행되어야 하며" 그 횟수는 목사와 다른 교회 지도자가 결정하도록 단순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43] 이런 면에서, 알란 클립포드(Alan Clifford)가 바르게 지적하듯이, '예배 지침'은 비록 소수가 인식한다 할지라도, 예전적 예배의 개혁파 전통을 종결시키고 있다.[44]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날 개신교회의 예배에서 주의 만찬이 반드시 다시 재발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언제나 시행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주의 만찬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대교회에서 성찬(Eucharist)은 주의 날에 거행되는 정상적인 예배였다.[45] 스트라스부르(Strassburg)의 개혁자 마틴 부써(Martin Bucer, 1491-1551)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예전 개혁의 하나는 "중세 교회의 년간(yearly) 성찬을 대체하기 위한 주간(weekly) 성찬의 회복"이다.[46] 동일한 정신을 따라 존 칼빈(J. Calvin, 1509-1564)은 주의 만찬을 드물게 시행하는 것은 "마귀의 발명품"이라고 선언하고 교회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7] 하지만, '제 1 치리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 1560)는 일년에 네 차례의 성찬을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왜냐하면 교훈과 치리가 반드시 먼저 시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48] 나중에

42) Horton Davies, *English Puritans*, 136.
43) *WCF*, 384.
44) Alan Clifford, 'The Westminster Directory of Public Worship (1645),' 55. 밋첼(Mitchell)은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장로교도는 매달, 독립파는 매주 주의 성찬을 시행하였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훨씬 더 드물게" 시행되었다고 지적한다. *The Westminster Assembly*, 235. Stanley R. Hall, 'The Westminster Directory and Reform of Worship,' 97.
45) James A. White, 'Presbyterian Worship,' 447.
46) William D. Maxwell, 'Reformed Worship,' in *A New Dictionary of Liturgy & Worship*, 459.
47) William D. Maxwell, 'Reformed Worship,' 459. cf. 막스웰(Maxwell)은 "본래, 칼빈의 예배는 설교단에서의 낭독과 설교와 더불어 식탁에서 성찬을 시행하였다. 나중에, 예배 전체는 적절한 예전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자 설교단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한다. 'Reformed Worship,' 460.

개혁 교회 역시 이러한 개혁파 예전의 원리에서 벗어나 아쉽게도 주의 성찬의 사용을 정상적 예배의 보충으로서 한정하였다. 최근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다른 예전적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카톨릭교도와 세계교회주의자들(Ecumenics)의 폭넓은 영향으로, 스코틀랜드 '공공예배서'(the Scottish Book of Common Order, 1979)와 미국 '예배서'(Worshipbook, 1970)는 "성찬식을 주일의 정상적 예배로, 그리고 성찬이 없는 예배를 예외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49]

2. 순서와 본문

우리는 이제 설교에서의 성령의 사역에 특별한 관점에서 공중 예배의 순서와 본문에 집중해 보자. '예배 지침'은 주로 제네바의 '기도서'(Form of Prayers.)의 구성을 따른다.[50] 이 '예배 지침'의 주된 관심은 공중 예배에서의 설교의 탁월성과 핵심적 중요성을 회복하는 것이다.[51]

회중의 집회

첫 번째 부분, '회중의 집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 예배에서의 그들의 행동에 관하여 '에서 사람들은 준비된 마음과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존경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예배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는다.[52] 이러한 영적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신적 예배의 특징으로서 성경적 단순성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53] 회중은 또한

48) James A. White, 'Presbyterian Worship,' 447.
49) James A. White, 'Presbyterian Worship,' 447.
50) Horton Davies, *English Puritans*, 130. 데이비스가 여섯 개의 예배서에 관한 유용한 비교를 한 주일 오전 예배의 챠트를 보라: Calvin's *La Forme Geneva* (1542), Knox's *Forme of Prayers* (Geneva, 1556), *A Book of the Forme of Common Prayers* (London, 1584/5), *A Book of the Common Prayers* (Middleburgh, 1586, 1587, 1602), *A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 (London, 1644), 그리고 Baxter's *The Reformation of the Liturgy* (London, 1661), Appendix A. *English Puritans*, 263.
51) Alan Clifford, 'The Westminster Directory of Public Worship (1645),' 65.
52) *WCF*, 375.
53) Alan Clifford, 'The Westminster Directory of Public Worship (1645),' 64.

예배 시간에 목사나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을 요청 받는다. 목사는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며, 우리의 무가치함과 죄들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낭독한 말씀의 설교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성경의 공적인 낭독

제 2장, '성경의 공적인 낭독'은 "그의 백성의 건덕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인 성경의 공적인 낭독을 요청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사와 교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연속 낭독'(Lectio continua)을 추천하는 것이다.[54] 외경(Apocrypha)[55]을 제외한 성경의 모든 정경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적으로 그리고 똑똑하게 낭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 예배는 폐기되었다. 이것이 개혁파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이다.[56] 낭독할 성경의 분량과 필요한 강해의 길이 둘 다 목사의 지혜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예배 지침'은 목사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여유가 주어졌다. 게다가, 성경의 공적인 낭독만 아니라 개인이 성경 책을 소유하도록 추천을 받은 것처럼, 사적인 성경 읽기 역시 추천되었다.

공적인 기도

다음으로 '설교 전의 공적인 기도'가 뒤따르는데, 여기에는 목사를 위하여 "편리한 순서를 따른"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열거되어 있다.[57] 죄(원죄와 자범죄)의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목사는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겸손히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

54) *WCF*, 375. LC. 156.
55) 외경은 다음과 같다: *Tobit, Wisdom, Judith, Ecclesiasticus, Baruch*, the books of *Maccabees, History of Susannah*의 세 부분, the *Song of the Three Children*, 그리고 the *History of Bel and the Dragon*.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33.
56) William D. Maxwell, 'Reformed Worship,' 458.
57) *WCF*, 376-79.

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죄함,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공로를 통한 화해를 열렬하게 간구할 것을 요청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길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나서 성화(죄 죽임과 우리의 죽은 영의 활력)를 위한 기도가 뒤따른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 모든 나라에 확장되기를 기도한다. 또한 나라와 왕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외적인 방편의 사용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유익한 청취를 위해 기도하며, 목사와 그의 회중을 위한 더 구체적인 기도를 올린다.

말씀의 설교

네 번째 부분인 '말씀의 설교'는 '예배 지침'의 소위원회 의장인 처음에 스티픈 마샬(Stephen Marshall)이 준비하였으나, 스코틀랜드 대표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정되어 작성되었다.[58]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 "복음의 사역자에게 속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59] 왜냐하면 복음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롬1:16). 설교에 관한 이 부분은 공중 예배의 중심으로서의 설교문을 취급한다. 이것은 알렉산더 밋첼(Alexander F. Mitchell)이 바르게 관찰했듯이, 성공회주의(Anglicanism)의 사제 신학에 대항한 예언(말씀)의 신학의 중요성에 대한 청교도의 확신을 선명하게 보여준다.[60] 이 부분은 작지만, 충분하게 완성된 설

58) Alexander F. Mitchell, *The Westminster Assembly*, 215. Robert S. Paul, *The Assembly of the Lord: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the 'Grand Debate,'* (Edinburgh, 1985), 363. 찰스 허얼(Charles Herle)은 공중 기도와 성찬 거행을 위한 문서를, 토마스 영(Thomas Young)은 성경 낭독을, 그리고 허버트 팔머(Herbert Palmer)는 교리교육을 위한 문서를 준비를 맡았다.
59) *WCF*, 379-81.
60) Alexander F. Mitchell, *The Westminster Assembly*, 238-9.

교 매뉴얼로 여겨질 수 있다. 워필드(B. B. Warfield, 1851-1921)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요컨대, 진실로, 그 진지한 실천적 감각과 그 심오한 영적 지혜에 있어서 현저할 뿐 아니라, 신실한 경건의 품격,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정과 그 진리로 이끌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완전한 설교학 논문이다."[61] 이것은 설교자의 자질, 설교문 작성의 방법, 그리고 설교 사역의 방식의 세 부분을 포함한다.

설교자의 자격

목사는 은사들, 즉 원어에 대한 지식과 기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인간의 학문, 그리고 신학적 지식, 특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 자질들을 겸비한 '학식 있는 목회'(learned ministry)는 목사의 임직에 대한 규칙들과 정확하게 상응한다. 여기서 인간의 학문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이의 관계가 선명하게 조화되고 있다. 이것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이며, 심지어 하나는 다른 하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이미 래티머(Latimer), 쥬얼(Jewel), 그리고 퍼킨스(Perkins)에 의해 강조되었다. '학식 있는 목회'는 여전히 요구되며 강조된다. 퍼킨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학문과 신성 모두에 대한 지식이 사용되는데, 특히 설교문 작성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에서 사용되며, 이 지식은 공적으로 설교문을 전달할 때 반드시 감추어져야 한다. 게다가, 목사의 영적인 자질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데, 그는 성령의 조명과 다른 건덕의 은사들을 위해 부단히 기도하며, "아직 획득하지 못한 어떤 진리이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에게 알려주시는 때에는 허용하고 받아들이길 결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한다.[62]

61) B. B.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52.
62) *WCF*, 379.

설교문 작성 방법

설교문의 주제는 반드시 다름 아닌 성경의 본문에 기초해야 한다.

(1) 설교문의 서론은 성경에 연결된 것으로 "짧고 명료해야 한다." 본문의 범위와 주요한 가르침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본문은 표현보다는 내용의 순서에 따라 분해되고 나누어지며, 청중의 기억과 이해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구분들이나 인위적이고 모호한 용어들은 없어야 한다.

(2) 본문으로부터 교훈들을 이끌어낼 때,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할 세 가지를 언급한다. 내용은 반드시 "청중의 건덕"을 위하여 "본문"에 기초한 "하나님의 진리"이어야 한다. 주요한 가르침은 반드시 쉽게 표현되어야 하며, 취급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명확하고 연관성 있는 병행 성경 구절로 확정되어야 한다.

(3) 추론들은 반드시 "확고해야 하며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 "영적 기쁨으로 청중의 마음에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예화들이 사용된다. "그럴 듯한 차이들을 조화시킴으로써, 이유들에 응답함으로써, 그리고 편견과 실수의 원인들을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가르침에 대한 그 어떤 저항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가르침은 반드시 청중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목사의 어려운 임무로 인식된다. 적용에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교훈, 책망, 권고, 경고, 위로, 그리고 시련. 어떤 적용을 선택해야 하는가는 자신의 회중 가운데서 수행하는 그의 목회 사역에 따라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적용을 찾게 될 목사의 지혜에 맡겨진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석한 성직자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목사로 하여금 자신의 청중들이 하나님 말씀의 소생케 하는 능력을 느끼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도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하기를 힘쓰라고 추천하였다(고전14:24, 25). 따라서

회중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된 설교문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서, 설교문 작성 방법은 퍼킨스가 『설교의 기술』(The Arte of Prophesying)에서 가르친 바대로 삼중 구조를 지닌 평이한 청교도 스타일을 여전히 대부분 본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지침'은 퍼킨스의 삼중구조, 즉 해설, 교리, 그리고 적용에서 교리, 추론(reasons), 그리고 적용으로의 작은 발전 혹은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예배 지침'은 확고하고 설득력 있는 추론들과 적용으로 지지되는 교리를 매우 강조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본문의 교리적 가르침이 강조되는 반면, 본문의 해석은 퍼킨스의 설교학 교본이 제시하는 바와는 달리 상당히 무시되거나 약화되었다. 이것이 아마도 17세기 후반 청교도 설교가 주해에 있어서 약한 반면, 교리와 적용에 있어서는 강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삼중구조가 "다양한 은사들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도 정형적인 교리, 추론, 그리고 적용에 의한 설교, 즉 자유로움이 배제된 설교"를 비난했던 안토니 투크니(Anthony Tuckney)에 의해 도전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이런 방식을 확고하게 견지했는데, 규정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추천으로서 견지하였다.[64]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 발견했기 때문이다.

설교사역의 방식

설교 방식에 대한 요약과 날카로운 묘사는 또한 '대요리문답'(the Larger Catechism)의 159 문답에서도 나타난다. 목사는 태만히 할 것이 아니라 진력하여(painfully) 설교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설교는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가장 무능한 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63) John Lightfoot, *Journal*, 278. Robert S. Paul, *The Assembly of the Lord*, 364-65 에서 인용됨.
64) *WCF*, 381.

복음을 쉽게(plainly) 설교해야 하며, "인간의 지혜를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해야 한다. 따라서 모르는 언어라든가 낯선 글귀들과 같은 무익한 것은 피해야 한다. 교회의 저술가들은 고대든 현대든 드물게 인용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평이한 스타일의 설교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목사는 자기 자신의 세상적 이득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 사람들의 회심, 건덕과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faithfully) 설교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가장 작은 죄를 경시하거나 가장 큰 죄를 용서해 주거나 함이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청중들의 분량에 맞게 전하고 적용해야 한다. 설교 사역은 반드시 지혜롭게(wisely)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목사가 자신의 가르침, 권고, 그리고 특히 책망하는 방식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는 어떤 쓰디쓴 감정 없이 각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존중해야 한다. 설교 사역은 또한 열정적으로(zealously) 그리고 진중하게(gravely)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의 존엄이 드러나고, 목사와 그의 사역이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교자는 청중이 자신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설교자의 경건한 열정과 열망을 느끼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하나님의 가르침 대로 성실하게'(sincerely as taught of God)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 이것은 모범적인 경건한 삶,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열렬하게 기도하며, 자신과 양떼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다(행20:28). 단지 복음의 진리가 흠 없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회심과 거룩한 삶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목사의 상급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예배 지침'은 청교도 설교의 다양한 측면, 즉 "지적,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 그리고 영적" 측면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한 작품이다.[65]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예배 지침'이 추천하듯이 설교자의 일곱 가

65) Alan Clifford, 'The Westminster Directory of Public Worship (1645),' 66.

지 태도는 설교자 안에 내재하는 성령의 사역과 직접 연관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추천된 설교 방식은 모범적인 경건의 삶에 의해 증거된 목사의 영성에 의해 보증된다. '예배 지침'은 목사에게 단지 학문과 신학적 지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보다 뛰어난, 성경으로 훈련된 감각과 마음"을 지닌 그의 실천적 경험적 지식도 요구한다.[66]

여기서 목사의 설교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청중은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대요리문답'의 가르침을 주목하는 것이 유익하다.

> 문. 160.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무엇인가?
> 답.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부지런하고,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청종하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 속에 간직하여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67]

목사의 일곱 가지 설교의 태도는 청중들에게 설교 말씀의 적절하게 청취할 것을 요구한다.

설교 후 기도[68]

설교 후 목사의 기도는 주로 많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며 열매를 맺도록 간구한다. 더 나아가, 이 기도는 죽음,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한다. 이 기도 뒤에 시편 찬송이 뒤따르며, 그 후 목사는 끝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청중들을 돌려보낸다.

---

66) *WCF*, 379.
67) 잠8:34. 벧전2:1-2, 눅8:18. 시119:18, 엡6:18-19, 행17:11, 히4:2, 살전2:10, 약1:21, 살전2:13, 눅9:44, 히2:1, 눅24:14, 신6:6-7, 잠2:1, 시119:11, 눅8:5, 약1:25. Cf. 소요리문답90.
68) *WCF*, 381-2.

Ⅲ. 나가는 글

살아있는 예배와 설교의 회복 없이는 한국교회의 진정한 영적 성숙은 기대할 수 없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린다. 교회의 참된 개혁과 갱신을 바라는 한국 장로교회는 신앙고백으로 수용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가운데 하나인 '예배 지침'에서 17세기 청교도들의 지혜와 열정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예배 지침'은 기본적인 성경적 단순성에 기초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요4:23). 영적 예배의 전체 순서는 회중의 건덕을 위한 적절한 순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진리 안에 있는 영적 예배는 목사와 청중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목사에게 있어서, 영적 예배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

(1) 목사는 신학적 지식, 인간의 학문과 기도 영역에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지적 은사들과 영적 은사들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목사는 말씀 사역에 임하는 성령의 축복을 봉사한다. 이 예배에서 성령은 목사의 기도와 설교를 통해 은혜를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예배 지침'은 기도와 설교를 위하여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기에 정해진 기도문과 설교집(Homilies) 사용을 거부한다.

(2) 목사는 교리, 추론, 그리고 적용의 삼중구조를 지닌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교도 설교의 특징인 평이한 스타일에 의해 가장 잘 구현된다.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된 반면, 교리의 적용은 교훈, 책망, 권고, 경고, 위로, 그리고 시련의 여섯 가지 종류를 따라 여전히 강조되었다.

(3)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태도로 설교할 책임을 갖는다. 즉,

진력하여, 쉽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열정적으로, 진중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목사의 영적 자질로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경건한 삶에 의해 증명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구조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신실하게 봉사되어진다(고전2:4). 그리하여 청중들은 "마음의 숨은 일들"을 살피시는 성령의 각성시키는 사역에 의해 감동된다(고전 14:24,25). 성령께서 평범한 수단인 말씀 사역을 통해 사역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것은 성령에 의한 또 다른 계시를 요구하는 재세례파적 정신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역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

청중에게 있어서, 진리 안에 있는 영적 예배는 경외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공중 예배에 참여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목사의 기도와 설교에 상응하여 조화된다.